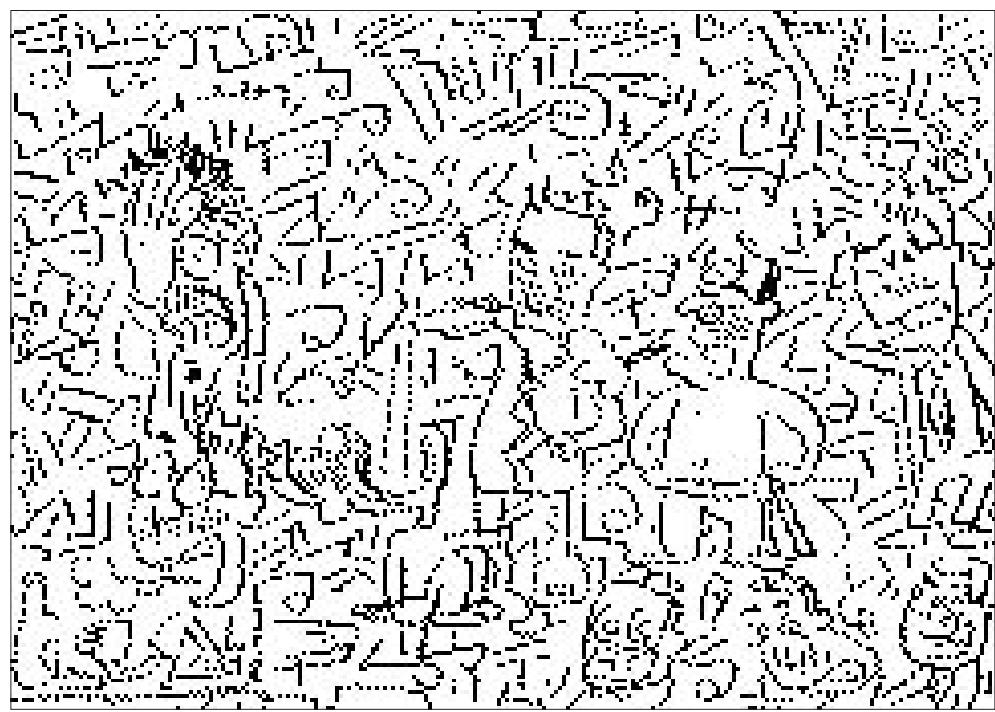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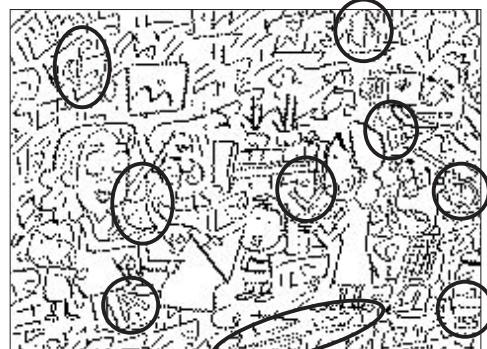
### 숨은그림찾기 <127>



( 찾 ) ( 아 ) ( 보 ) ( 세 ) ( 요 ) A자, 부엌칼, 펜촉, 뜨단배, 슬리퍼, 열쇠, 콧불, 짐자리, 디리미

### 술 버릇 BEST 6

1. 쿠데타형 : 선배고 아비고 할배고 간에 서열 무시하고 시비 건다.
2. 청문회형 : 횡설수설 내지는 기억을 저당 잡힌다.
3. 물 고문형 : 강제로 남들에게 술을 꼬 먹인다.
4. 삼류영화형 : 아무데서나 무조건 벗어제친다.
5. 삼류극장형 : 필름이 뚝 끊어진다.
6. 무단발포형 : 술집이 간 전봇대간 방 안이 건 안 가리고 방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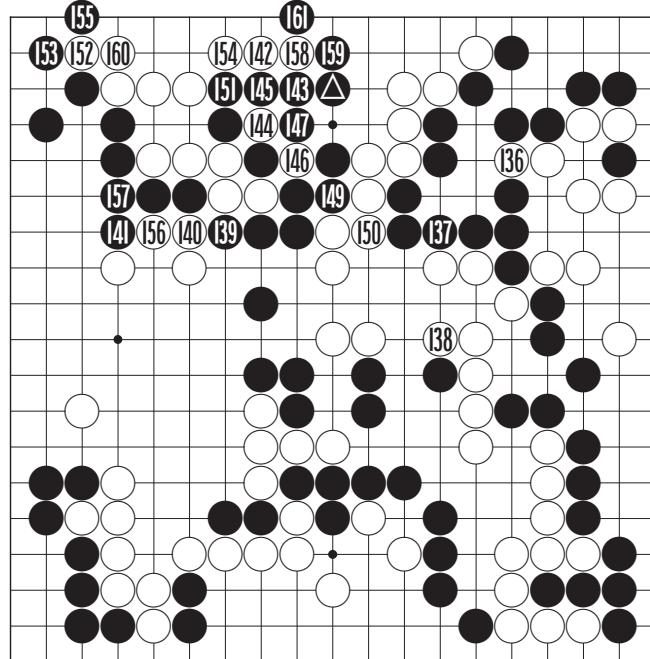
#### 지난주 정답

온행잎, 송사리, 새집, A자, 셔틀콕, 디리미, 바늘, 음표, 증이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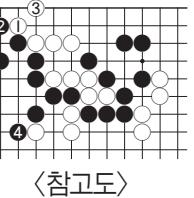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주영 (광주시 북구 일곡동) 김귀주 (광주시 서구 능성 1동)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 SINAN 엘도라도리조트

###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인탁대회



시달릴대로 시달리고 있는 허우석 5단은 '뭘대로 되리'는 심정이 되어

백 142로 두고 144로 끊어 장렬한 자

### 장렬한 자폭

8보 (136~161)

白 허우석 5단 黑 박광주 5단  
(복구청) (포스코)

흑 Ⓛ로 상변이 초토화되면서 차례로 승부가 끝났다고 보여질 정도다.

흑 147까지 돌려치고 나서 149가 선수가 되어 백이 살아갈 길은 없어졌다. 흑 155가 결정타로 좋은 수였다. 이 수가 두어진 이상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두집을 낼 수가 없다. 허우석 5단은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듯 묵묵히 160까지 두어보더니 161을 보자 선선히 돌을 던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皓설위원〉

### 바둑소식

#### 조한승 아시아선수권 결승행

조한승 9단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이창호 9단을 145수 만에 불계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조한승은 초반부터 중앙에서 집을 넓혀 나갔고, 이창호의 맹렬한 후반 공격을 잘 따돌렸다.

이로써 조한승은 4일 이세돌 9단과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상대전적은 이세돌이 17승 11패로 앞서고 있다.

2005년 17회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조한승이 3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할지가 관전 포인트. 이 대회는 제한시간 없이 1분 초읽기 10회로 치러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리빙 센스

#### 오이피클 만들기

조선오이 4개  
파클링스파이스 1큰술  
물 1컵 반  
식초 3분의 2컵  
설탕 3분의 2컵  
소금 1큰술  
월계수잎 3~4장



-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오이를 먹기 편한 크기로 썰어 유리 용기에 담아둔다.
- 냄비에 물을 끓고 양념을 다 넣은 후 파클링 스파이스가 우러나 때까지 5분 정도 끓인다.
- 끓인 양념이 식기 전에 오이에 부어준다.
- 양념이 식으면 용기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는다.
- 냉장고에 넣고 2~3일이 지나면 양념이 배어 야삭한 오이 피클이 완성된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 (음 5월 1일 乙亥)

子	36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멀지 않다. 48년생 혼자하며 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60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 적어 참여해라. 72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모든 일이 마사황통된다. 행운의 숫자: 11, 41
丑	37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 49년생 지인의 혼조가 있다. 61년생 순풍에 향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73년생 처거나 사가 편에 애시가 생길 수 있다. 85년생 순풍과 역풍이 같이 허나 선택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20, 38
寅	38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50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나 초심은 잊지 마라. 62년생 새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죽은 없으리라. 74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지마. 행운의 숫자: 12, 30
卯	39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1년생 정신이 훈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3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행운의 숫자: 22, 34
辰	40년생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보라. 5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보라. 64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나 아내의 생기나 초심은 잊지 마라. 66년생 새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죽은 없으리라. 78년생 암중모색은 신뢰가 부려질까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21, 32
巳	41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주변에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65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집어야 없으리라. 77년생 행동을 조심하고 미泔을 지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午	42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 있다. 54년생 뜻밖의 혼조가 있으나 결과는 기대하지 마라. 6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밭발될 수도 있으나 변화를 가져라. 78년생 암중모색은 하나 쉽지 않다. 행운의 숫자: 24, 28
未	43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55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로소로 살아난다. 67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79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4, 44
申	44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편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56년생 웃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68년생 많은 같이 함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80년생 재물로 길들이거나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16, 17
酉	45년생 기력이 쇠하니 예방장을 살펴보라. 5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으니 식솔은 살펴보라. 69년생 순위에 항해하는 것이다. 8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01, 43
戌	46년생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언쟁을 삼가라. 58년생 금잔 사기 대수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70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82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02, 31
亥	4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9년생 일송일배는 병가지상사다. 71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결과는 꼽고락이다. 83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라. 행운의 숫자: 23, 42

[www.cafe.daum.net/sajoo114](http://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 굿모닝 잉글리쉬 <1174>

I didn't mean to bump into you.  
고의로 부딪친 것은 아닙니다.

- A: Oh, excuse me. I didn't mean to bump into you.  
B: That's all right.  
A: Can I give you a hand?  
B: Sure, you can grab those bags if you want to.  
A: 오, 죄송합니다. 고의로 부딪친 것은 아닙니다..  
B: 괜찮아요.  
A: 도와 드릴까요?  
B: 그래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그 가방들을 좀 들어 주실래요?  
\* bump into ~ : ~에게 고의로 부딪친다  
\* 제가 고의로 맥의 달걀 프라이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 I didn't mean to eat all of your fries.

### 오하요우 니혼고 <1174>

ちっとも治(なお)りません.  
전혀 낫지 않습니다.

- A: あ、どこかわるいんですか.  
B: 頭(あたま)が痛(いたい)です.  
ゆうべ藥(くすり)を飲(の)んで寝(ね)ましたが、ちっとも治(なお)りません.  
A: ジャ、お医者(いしゃ)さんに行(い)った方(ほう)がいいですね.  
A: 아, 어디가 안 좋으세요.  
B: 머리가 아픕니다.  
어젯밤 약을 먹고 잤습니다만, 전혀 낫지 않습니다.  
A: 그럼, 의사 선생님께 가는 것이 좋겠군요.  
ゆうべ: 어젯밤  
ちっとも: 조금도  
治(なお)르: 낫다

### 니하오 쟁구워 <151>

你的筆在哪儿?  
당신의 펜은 어디에 있습니다?

- A: 你的笔是不是蓝的?  
ni de bi shibushi lan de  
는데 비일색인 것인가?  
B: 是啊。  
shi a  
소아  
A: 你的笔在哪儿?  
ni de bi zai nra  
는데 비일색인 것인가?  
B: 在我的书包里。  
zai wo de shubao ri  
자이 떠던 손재포집  
A: 당신의 펜은 떠란색입니까?  
B: 맞습니다.  
A: 당신의 펜은 어디에 있습니까?  
B: 저의 가방 안에 있습니다.  
哪儿 [nra] 어디에  
书包 [shubao] 책 가방

### 한자 이야기 <791>

沒入(몰입)  
빠질 몰, 들입

몰입(沒入)은 어떤 일에 온 정신(精神)이 빠져 들어감이다. 고도의 정신집중 상태이다. 몰입은 마음을 가리워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침잠(沈潛)과도 유사하지만, 침잠이 가리워거나 무기운 분위기인 것에 비하여, 몰입은 잠재된 역량을 불러일으키는 역동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홍길동 교수는 “일에 미치지 말고 생각에 미쳐라”고 주장하면서 몰입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집중력(集中力)을 높이면 천재(天才)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몰입’이 천재성을 일깨워주는 열쇠라고 말한다. 또 몰입상태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치며 호기심이 극대화되어 평소 어려워 풀지 못하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몰입적 사고를 교육에 접목시킨 것이 유대인의 영재교육이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 결국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영어몰입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몰입’이 거론되었다. 즉 영어 외의 수학·과학·사회 등의 교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면 서 영어 숙달도를 높인다는 정도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리라.